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 '풍성'

무주산골영화제 관객 이벤트 프로그램 대공개
개막축하공연 양희은 비록 10cm · 소란 · 옥상달빛 등
이천희 · 이세희 형제가 함께 꾸미는 '하이브로우 존'
독립출판물전문서점 '유어마인드'와 함께 하는 산골책방

초여름의 낭만 영화제, 제7회 무주산골영화제가 산골 무주를 찾은 관객들을 위한 다채로운 이벤트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지난해 관객 이벤트 프로그램을 확장시켜 관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이끌어낸 무주산골영화제는 올해에도 새롭고 다양한 시도를 통해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즐거움을 선사하고자 한다.

먼저 무주산골영화제만의 특별한 기획력으로 업그레이드된 산골콘서트 공연 라인업이 관객들을 기다린다.

6월 5일 수요일 오후 7시, 전 세대의 마음을 울리는 감동적인 목소리 소유자, 가수 양희은의 개막식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달콤한 멜로디와 색다른 보이스로 여심을 사로잡은 싱어송라이터 10cm(십센치) 권정열과 세밀하면서 사랑스러운 가사로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밴드 소란, 대중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옥상달빛의 공연이 이어진다.

이와 함께 특유의 음색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는 김필과 감성 싱어송라이터 빌리어코

스티, 세계적 감각을 노래하는 은종 등 자신만의 개성이 뚜렷한 젊은 뮤지션들의 공연과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전북사회적경제페스티벌과 함께 전북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문화 공연팀들의 다양한 공연이 펼쳐진다.

그리고 올해 영화제의 주요 야외 프로그램이 진행될 무주등나무운동장에는 이천희·이세희 형제가 만든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 '하이브로우 HIBROW'와 함께 관객들을 위한 특별한 공간이 마련된다. '하이브로우 존'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탄생할 낭만스튜디오는 이벤트 무대 및 관객 센터, 하이브로우 팝업 스토어, F&B 숍, 산골책방 등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독특한 공간으로 구성되어 관객에게 색다른 공간의 즐거움을 전해줄 것이다. 이천희, 이세희 형제는 영화제 기간 무주를 방문해 스페셜 토크로 관객들을 만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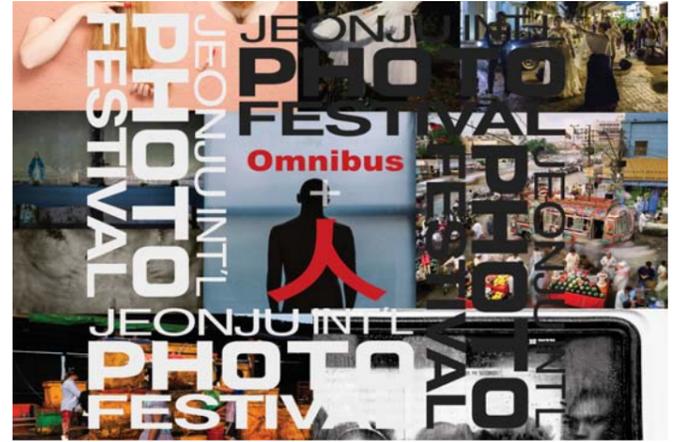
이와 함께 영화제를 찾은 관객들에게 독서와 휴식의 시간을 제공해준 산골책방은 올해, 1세대 독립출판물전문서점인 '유어마인드 YOUR-

MIND'와 함께 진행한다. 소형 출판사 및 개인에 의해 제작된 독립출판물과 아트북을 중심으로 운영 중인 유어마인드의 특별한 북큐레이션을 통해 평소 쉽게 접하기 어려웠던 개성 가득한 독립출판물을 선보일 예정이며 더불어 출판사 유어마인드를 통해 <무슨 만화>를 발표한 작가와 함께 하는 스페셜 프로그램도 함께 준비된다.

또한 다채로운 토크 프로그램이 관객을 찾는다. 배우 특집 프로그램 '네스트 액터'의 주인공 배우 박정민과의 토크를 비롯하여 작년 덕유산국립공원에서 큰 인기를 모은 김영만 아저씨의 앙코르 색종이 접기, MBC 라디오 '배출수의 음악캠프'의 작가 배순탁과 영화 <화차>, <낮은 목소리>의 감독 변영주가 함께 하는 뮤직&무비 토크가 준비되어 관객에게 또 다른 재미를 선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관객들에게 휴식과 즐거움의 시간을 선사해온 산골공방이 올해엔 한국임업진흥원과 무주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촌라마켓'과 함께 예년보다 더욱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관객들을 맞이할 예정이다.

제7회 무주산골영화제 관객 이벤트 프로그램 세부 사항은 영화제 공식 홈페이지(www.miff.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올해 영화제는 6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무주군 일대에서 열린다. /무주=전문선 기자



예술인들과 함께 즐기는 사진축제

전주국제사진제 내일 서학동 예술마을서 '광파르'

제12회 전주국제사진제가 내일부터 28일까지 전주시 서학동 예술마을 일대 갤러리에서 열린다.

사)현대사진미디어연구소, 아트갤러리 전주가 주최하고 전주국제사진제 운영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사진제는 서학동갤러리길 협의회가 협력한다.

올해 사진제의 주제는 'Omnibus+'으로, 한 가지 주제에 집중했던 지난해와 달리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개막 초대 리셉션은 내일 오후 6시부터 아트갤러리 전주 앞 광장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기획전과 초대전, 세미나, 이벤트 등 총 10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지역과 장르의 구분 없이 예술인들이 모여 한 자리에서 사진축제를 즐기는 시간인 것이다.

특히 올해는 전주의 대표적 예술마을인 서학동 갤러리길 협의회와의 협력을 통해 '갤러리 길' 소호 거리에 상주해 있는 대부분의 전시장과 공방거리 등이 함께 참여해 더욱 풍성한 행사로 꾸며질 예정이다.

먼저 '페스티벌 인 페스티벌'에서는 벨기에 출신 디렉터인 제롬(Jerome De Paringhi)이 기획한 22명의 디큐멘터리 포토그래퍼의 작품이 초대된다.

또 20년이 넘는 전통 있는 사진축제인 KLPF(쿠알라룸푸르 사진축제) 디렉터인 제시카 첸(Jessica Chan)이 기획한 전시도 선재미술관과 이순애스튜디오에서 소개된다. 총 4명의 작가가 참여하는 이번 기획에는 지역의 전통을 지키고 살아가는 시골마을에서 주민과 삶의 이야기를 조명한 작품을 전시한다.

한국 현대사진의 대표 주자인 구본창 작가 초대전도 빼놓을 수 없다. 아트갤러리 전주 1·2층에는 구 작가의 독일 유학 시

절과 귀국 직후 초창기 사진으로 꾸며지며, 한국인의 정서를 담아낸 기면(탈) 시리즈 작품도 전시된다.

미국 아카데미 대학교수인 이준용 작가를 포함한 4인의 사진가가 참여한 '몸과 정체성(Body and Identity)'은 서학아트스페이스 2층에 전시된다. 우리에게 가장 가깝고 익숙한 사람의 몸을 다양한 형태들로 보여주고 제시한다.

초창기부터 전주국제사진제를 이끌어 온 디큐멘터리 사진가 성남훈씨가 기획한 '시간의 겹'의 작품들은 전주향교, 피크닉 갤러리, 티 모먼트갤러리 등에서 만날 수 있다. 총 10명의 작가가 초대돼 각자의 사진적 시각을 통해 사람 이야기,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그집어낸다.

사진 전문 잡지 '포토닷'의 박이찬 대표가 기획한 7인전 '시각적 대화'는 사진공간 눈에서 열리며, 서학동 사진관에서 진행 중인 김주희 작가의 '공소순례' 개인전은 지역의 종교문화를 심도 있게 담아내고 있다.

전시 프로그램 외에도 오픈닝 이벤트로 마련되는 '별빛 포토 스크리닝 여행'은 관람객들에게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외 사진기획자, 작가, 학술인 사진 관계자와 시민이 함께하는 자리로 꾸며질 예정이다.

또 서학아트스페이스에서는 진행되는 세미나에는 각 색채별 큐레이터와 작가들이 참여해 각자의 작업을 공유하는 한편, 앞으로의 과제와 미래 사진의 방향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된다.

운영위 관계자는 "올해 사진제는 지역의 장르 구분 없는 예술마을을 아티스트들과 함께, 모두가 한자리에서 사진 축제를 즐길 수 있는 최고 점점의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



양희은



소란



십센치

꿈과 희망 키워주는 예술의 향유 '군산청소년예술제'

군산예술의전당서 내일 오후 1시 개최

사단법인 한국예총 군산지회가 주최하고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과 군산시가 후원하는 제24회 군산청소년예술제가 내일 오후 1시부터 군산예술의전당에서 열린다.

이 예술제는 청소년들의 문화와 예술에 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치유하고 청소년들의 문화·예술적 기량을 펼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프로그램은 ▲1부 식전공연 ▲2부 개막식 ▲3부 본 공연 ▲외국 문화·예술 등으로 꾸며진다.

부스는 ▲전통부채 서화그리기 ▲세계 음식

체험 ▲세계 전통놀이 체험 및 만들기 체험 등 총 11개의 다양한 주제별 부스가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해외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돌아온 청소년들의 세계문화공연과 학교장 추천을 받은 군산시 청소년 단체 우수 공연팀의 무대도 큰 호응이 기대된다.

한국예총 군산지회 황대욱 회장은 "청소년 예술제는 외국의 문화와 예술을 체험하며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특화했다"면서 "청소년들이 즐거움과 흥으로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꿈과 희망을 키워주는 예술 향유의 장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캠핑하기 딱 좋은 곳... 무주 빨강치마리조트










홈페이지: <http://www.milmo.co.kr> 전화: 063-322-7000